

# 1996년도 건설업 경기전망

1996년도 건설공사 수주규모는 작년대비 12.7% 늘어난 67조3,890억원으로 예측되었으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성장률은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공사 기성액은 작년보다 19.6% 늘어난 69조8,100억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이 월된 공사량의 변수가 매우 불안하여 동 금액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 민간부문 건축경기, '96년 하반기 이후 회복국면

### 1) 개요

'95년 들어 지속되어온 경기확장세는 그동안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엔고가 7월 이후 급격히 엔저로 반전되면서 '96년도 우리 수출경쟁력의 저하예상과 각종 설비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저하상태를 보이는 등 각종 경기선행지표들이 후퇴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를 정점으로 하여 다소 둔화되고 '96년도에는 경기하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민간경제연구소들은 7~8%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96년도 전망치들을 중심으로 경제환경을 살펴보면, 첫째 투자면에서는 8~8.5%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며 이중 설비투자는 '94년~'95년 2년동안 걸쳐 대규모로 신·증설이 이루

어진 데다 엔저 등으로 인한 수출환경의 불투명으로 '95년보다는 크게 둔화되기는 하겠으나 8.5~9% 수준의 착실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건설투자(기성액 기준 '90년 불변가격)는 공고부문에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더더 전체적으로는 증가율이 7.5~8% 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면적의 전망치는 95년 대비 4.1%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어 건축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주거용부문은 하반기를 고비로 물량증가가 기대된다.

둘째, 경제성장의 한 축인 소비는 경제내에서 후행하는 지표로서 96년도 경제성장률 둔화폭만큼 바로 하락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증가율은 올해보다 소폭으로 둔화된 7.5~8.0%로 전망되나 민간소비부문의 증

가율은 경제성장률을 다소 상회할 전망이다.

셋째, 물가는 현재의 성장기반이 투자와 수출에 있는 만큼 소비부문에서의 압력이 크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현실화, 개인서비스요금 인상과 '96년도 상반기중 총선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등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우려 등으로 올해의 4.7%에서 5.0~5.5%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2) '96년도 건설계약액 전망

### 가. 개황

'96년도 건설공사 수주규모는 '95년 대비 12.7

% 늘어난 67조3,890억원으로 예측되었으나 증가세는 올해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성장률은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어 경기면에서는 다소 어두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9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7.2%의 실질증가가 예상되나 '95년도 증가세보다 2.3% 포인트나 둔화된 것이고 '96년도 경제성장률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90년 기준 '96년도 건설시장규모(물량)는 95년 대비 평균 7.2% 증가에 그치겠으나 신규면허 발급에 따른

민간경제연구소별 '96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 %, 억달러)

	대우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95	'96	'95	'96	'95	'96	'95	'96
GDP성장률	9.2	7.4	9.1	7.3	9.2	7.4	8.8	7.6
최종소비	7.4	6.6	8.5	7.5	8.4	8.0	8.2	7.9
고정투자	11.8	7.3	-	-	-	-	11.7	8.2
설비	17.0	7.8	17.2	7.0	15.1	5.2	17.2	9.1
건설	8.0	6.8	8.1	5.8	7.9	7.5	7.7	7.4
수출(통관)	1,243	1,381	1,270	1,504	1,282	1,471	1,241	1,426
(증가율)	(29.5)	(11.1)	(32.2)	(18.5)	(33.5)	(14.7)	(29.3)	(14.9)
수입(통관)	1,341	1,466	1,368	1,568	1,365	1,529	1,344	1,512
(증가율)	(31.1)	(9.3)	(33.7)	(14.6)	(33.4)	(12.0)	(31.4)	(12.5)
수출입자(통관)	△98	△85	△98	△64	△83	△58	△103	△83
무역수지	△51	△36	△51	△20	△45	△16	△61	△43
경상수지	△77	△58	△85	△48	△75	△49	△94	△77
소비자물가(동기대비)	4.6	4.9	4.8	5.2	4.9	5.2	4.7	5.2
회사채(3년)	14.0	12.2	13.0	12.7	12.5	11.7	12.7	12.3
평균수익률								
원/달러평균환율	770	750	770	750	765	750	770	765
원/달러평균환율	93	91	92	100	100	95	99	95

96년도 건축허가면적 전망

(단위 : 천㎡, %)

	94년도		95년도(잠정)		96년도(전망)	
	면적	증감률	면적	증감률	면적	증감률
건축허가면적계	116,221	-1.3	136,070	17.1	141,700	4.1
주거용면적	63,338	-8.6	64,690	2.1	73,340	13.4
비주거면적	52,883	9.1	71,380	35.0	68,360	4.2

회사수는 3,400개사 내외로 최소한 200여개사가 늘 것으로 보여 개별기업 입장에서의 경기감각은 매우 악화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겠다.

건설공사 기성액은 95년보다 19.6% 늘어난 69조8,100억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이월된 공사량의 변수가 매우 불안하여 동 금액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나. 민간부문 계약액**

민간부문의 계약액은 40조6,420억원의 수주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12.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6년도 민간건설시장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각 두 가지씩의 요인으로 대별된다.

첫째, 정부는 현재 둔화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고 연착륙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긴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내수산업(건설업)의 급격한 확대 내지는 경기진작은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설비투자의 축소에 따른 동 부문에서의 공장건물건설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3년간 지속되는 SOC확대투자에 따라 민간건설분야에서의 추가적 수요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넷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상당자금의 유입이 기대되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민간건설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토목은 3조4,370억원으로 전년대비 22.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94년도에 3조1,386억원에 비해 10%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96년도 민간 총예상 물량의 8.5%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민간건축은 '95년에 이어 '96년에는 11%대의 신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금액으로는 37조2,05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중 주거용건축과 비주거용건축은 52% : 48%의 구성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낮은 증가세로 전망되는 이유는 아파트 미분양이 당분간 지속될 것과 비주거용건축 역시 하락하는데 기인하는 것과, 내년도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하여 총통화 증가율을 올해 16%선에서 14% 수준으로 통화관리목표가 하향조정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금공급이 내수산업에 보다 높은 강도로 억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건축경기는 아파트 미분양의 적체물량이 해소되는 '96년 하반기 이후에나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96년도 건설계약액 전망

(단위 : 억원, %)

	94년도		95년도(잠정)		96년도(전망)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합 계	52조1,648	20.7	59조7,820	14.6	67조3,890	12.7
토목공사	15조4,924	16.0	18조4,310	19.0	21조1,660	14.8
건축공사	36조6,724	22.7	41조3,510	12.8	46,2230	11.8
민간부문	33조1,690	24.1	36조1,360	8.9	40조6,420	12.5
토목공사	3조1,386	10.9	2조8,000	-10.8	3조4,370	22.8
건축공사	30조3,304	25.7	33조3,360	11.0	37조2,050	11.6
공공부문	18조9,958	15.1	23조6,460	24.5	26조7,470	13.1
토목공사	12조3,538	17.4	15조6,310	26.5	17조7,290	13.4
건축공사	6조6,420	11.0	8조0,150	20.7	9조0,180	12.5
건설공사기성액	49조8,910	21.0	58조3,600	17.0	69조8,100	19.6

**다. 공공부문 계약액**

공공부문에서는 26조7,470억원을 수주할 것으로 보여져 올해보다 1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 공공건축**

공공건축은 '95년보다 12.5% 늘어난 9조 1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95년 증가세(20.7%)보다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미분양의 적체에 따라 공공주택건설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 에 기인하는 데 특히 대한주택공사가 '95년보다 약 1만가구가 줄어든 6만5천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어 주거용부문의 위축이 예상된다 반면 소규모 청사건물 신축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2) 공공토목**

공공토목은 17조7,290억원의 수주규모를 나타 낼 것이나 증가율은 전년 증가율(26.5%)보다 크게 둔화된 13.4%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앙행정기관의 '96년도 시설사업예산의 성격이 신규사업의 확대보다 계속공사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96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시설사업내역을 살펴 보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올해보다 23% 늘어난 8조1,51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전체 예산규모 증가율 14.9%를 크게 웃도는 것이나 사업성격이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사업의 완공위주로 예산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공공부문의 신규건설 물량은 위에서 예측한대로 평균증가율보다 다소 하회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96년도 주요사업별 현황(96년도 정부예산안 발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속도로 : 1조8,899억원(27.9% 증가)</li> <li>국도 : 3조3,047억원</li> <li>확·포장 : 2조5,488억원</li> <li>유지보수 : 5,059억원</li> <li>국고채상환 : 2,500억원</li> </ul> </li> <li>우회, 지방간선도로 : 1,105억원</li> <li>교통애로구간, 노후교량 터널개축, 보수 : 7,693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도 : 1조3,534억원(27.7% 증가)</li> <li>고속철도 : 3,748억원</li> <li>간선철도 : 1,812억원</li> <li>노후차량대체시설개량 : 5,227억원</li> <li>공역전철망 : 2,747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철 : 7,849억원('95년 : 8,292억원)</li> <li>서울지하철 2단계 : 2,240억원</li> <li>부산지하철 2.3호선 } 2,911억원</li> <li>교통공단운영</li> <li>대구지하철 1.2호선 : 1,578억원</li> <li>인천지하철 1호선 : 1,080억원</li> <li>전동차 연구개발비 : 40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항 : 4,402억원</li> <li>수도권신공항 : 2,482억원</li> <li>지방공항확충시설개량 : 1,920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 : 6,247억원</li> <li>부산, 광양 : 1,657억원</li> <li>지방 소항 : 3,516억원</li> <li>7개 신항 : 200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목적댐 : 3,848억원(19.9%)</li> <li>영월댐건설 : 50억원</li> <li>소양댐여수로 : 25억원</li> <li>6개댐건설 : 3,748억원</li> <li>댐유지관리 : 24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수 : 2,523억원(27.9%)</li> <li>토지보상 : 477억원</li> <li>낙동강 : 309억원</li> <li>금강 : 290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기반시설 : 1,626억원</li> <li>진입도로건설 : 373억원</li> <li>공업용수도 : 753억원</li> <li>지방공단조성 : 500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부문 : 1조3,261억원</li> <li>상수도시설확충 : 7,138억원</li> <li>수질개선 : 2,550억원</li> <li>폐기물관리 : 1,880억원</li> <li>자연보전 : 1,693억원</li> </ul>